

당정, 소상공인 지원금 대폭 인상...내달 17일부터 지급

희망회복자금 113만명 중 90만명 1차 지급 대상 송영길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과감한 결단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 확대에 의견을 같이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내달 17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희망회복자금의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일단 8월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체 지원대상 약 113만명 중 80%인 90만명정량이 1차 지급 대상이다. 나머지 소상공인에게는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과 관련,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역단계 상황을 반영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물론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회 상임위에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액을 각각 증액해 이를 합치면 증액 규모가 3조5300억원이 된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여러 애로 사항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 그는 현재 33조원 규모인 2차 추경안 증액 여부에 대해서는 “예결위 심사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추경 규모와 부분별 금액은 더 논의해야겠지만, 더 늦어지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히 추경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당정 간 이견이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문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여부와 맞물린 ‘신용카드 캐시백’, 국제 상황 여부 문제도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현 재 방식대로 한다면 약 1000만명의 국민이 제외된다. 소득수준 분리에 따른 행정 비용, 지급 공정성 문제 등 여러 기회비용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가 금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지급단가를 상향하고 경영위기업중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19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손수건으로 박관현 열사의 묘비를 닦고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만진 비석을 닦아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17일 이곳을 참배하면서 묘비를 붙잡고 추모했다.

김두관 “윤석열이 더럽힌 묘비 닦아 드려야”

5·18 묘지 방문 흔적 지우기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19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5·18 민주묘지 방문 흔적 지우기’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5·18 민주묘역을 참배한 뒤 박관현 열사의 묘비를 찾아 현화·복념하고 묘비를 자신의 손수건으로 닦아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곳을 찾은 것을 거론하며 “윤 전 총장이 더럽힌 비석을 닦아드려야겠다는 심정으로 손수건으로 비석을 닦았다”고 의미를 전했다. 그는 묘역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은

자신이 속했던 조직에서 광주시민들을 폭도, 빨갱이로 몰았다”면서 “희생자들 앞에서 소를 할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광주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면서 “대권후보에서 그를 반드시 끌어내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한 것을 두고 “신성한 묘비에서 더러운 손을 치우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광주 오월 정신으로 차별과 특권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썼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컷오프 허위 득표율 유포 민주 선관위, 5명 징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예비경선(컷오프) 관련 허위 득표율을 유포하는 데 관여한 5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2명은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나머지 3명은 위반 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주의나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이 중 1명은 당직자라는 이유로 내부 인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한편 원내대변인은 “단순히 퍼 나른 행위에 대해서는 주의·경고만 하고, 사건을 달아 상대 후보를 비방한 분들은 윤리심판원으로 보냈다”며 “떠도는 내용은 4가지 버전 모두 허위”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최재형 지지율 경쟁 본격화

윤, 네거티브 공세 적극 대응 최, 인지도 높이기 행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지율 경쟁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여야를 통틀어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윤 전 총장과 이제 갓 ‘마의 5%벽’을 뚫기 시작한 최 전 원장 사이 격차는 크지만, 서로에 대한 견제는 이미 시작된 분위기다. 먼저 윤 전 총장 측은 네거티브 공세에 보다 적극 대응할 태세다. 그간 검증에 방치한 공격에 미흡하게 대응해 지지율을 깎아 먹었다는 캠프 안팎의 지적을 고려한 기류 변화다. 최 전 원장이 도덕성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이유로 윤 전 총장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전략 수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총장 측이 10여 년 전 건설업자로부터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는 19일 한겨레신문 의혹 보도에 “매우 유감”이라고 강하게 대응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윤 전 총장 측은 내부적으로 네거티브 대응팀을 꾸리는 동시에 조만간 캠프 밖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른바 ‘윤석열 X파일’ 진원지로 지목되는 정대택 씨를 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무분별한 음해나 인신공격에는 ‘무시 전략’으로 일관할 계획이다. 최 전 원장 측은 인지도를 높이고 미미한 지지율을 두 자릿수로 끌어올리는 것을 1차 목표로 속도전에 가까운 공개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 의회 전격 입당으로 그의 잠재력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는 8월 말 9월 초 이전에 실제 저력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최 전 원장은 이날도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개 방문해 ‘원팀’ 스킴을 과시했다. 앞서 오 시장을 비공개로 만난 뒤 적극 알리지 않은 윤 전 총장과 대비되는 효과를 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권 도전 선언 역시 서두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안에 국정 운영 비전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해 기대치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이용빈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산구갑)은 19일 대한민국 AI의 새로운 기준이 될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으나 정부 부처나 지자체, 산업별로 분절되어 추진되는 등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체계와 사업여건의 일관성이 모호해, 종합적인 정책추진에 한계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번 인공지능제정법 발의를 계기로 광주에 조성 중인 국가인공지능집적단지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인공지능 경쟁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의 생산-

수집-관리-유통-활용 등 전반적 지원방안과 더불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지원, 인공지능기술 보호, 안전확인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비상정지 등의 조항도 담겼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은 데이터·네트워크 등과 함께 국가·도시·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로서 향후 경제·사회구조의 전환적 혁신에 있어 국민의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동력이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h3>장성 토지 (매매 분양)</h3>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토지평수 (150, 200, 500, 1800)</p> <p>전원주택, 창고, 투자적합</p> <p>010-6670-9800</p>	<h3>상가매매 (상무지구)</h3> <p>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 3천 (용 4억)</p> <p>2) 월수익 300만 (보4천)</p> <p>3) 평수 140평, (전용 100평)</p> <p>● 6층 평수 80평 매가4억5천(용 2억6천) ● 7층 평수 60평 매가 2억 3천 (용 9천) (사무실 리모델링, 배, 유층,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010-6670-9800</p>	<h4>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h4> <p>당 회사는 2021년 7월 19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1,175,000,000원 중 금50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금 675,000,000원으로 하기로 결의하고, 그 방법으로 발행주식총수 117,500주중 50,000주를 회피하는 주주로부터 1주당 금10,000원에 매수 유상소각하여 총 발행주식 117,500주를 67,5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구주권을 가지는 주주는 구주권을 본 회사에 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p>2021년 7월 20일 대정종합건설 주식회사 광주 남구 효우2로26번길 23, 202호(행암동) 대표이사 박성수</p>	<h4>상속한정승인공고</h4> <p>· 피상속인: 망 이영미(821109-XXXXXX) · 최후주소: 전남 신안군 지도읍 장안길 73-20 (행정리) · 등록기준지: 전라남도 목포시 중동2가 22번지 피상속인 망 이영미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1년 10079호로 신청하여 2021년 7월 12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p> <p>2021년 7월 20일 · 상속인: 박준상(050808-XXXXXX)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삼수 전남 신안군 지도읍 장안길 73-20 (행정리) · 신고기간: 2021. 7. 20. ~ 2021. 9. 28. · 채권신고장소: 상속인 박준상의 주소</p>	<h4>자본감소 공고 및 주권제출공고</h4> <p>당 회사는 2021년 7월 19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 200,000,000원을 금 10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원 해는 주주의 청산을 받아 발행주식 총 20,000주 중 10,000주 1주당 금 10,000원에 배당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음. 본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일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주권을 가진 사람은 위 기간 내에 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p>2021. 7. 20. 유신영지 주식회사 울산광역시 북구 장전길 2 (전장동) 대표이사 서경학</p>	<h2>光州日報</h2> <p>69년을 밝히는 호반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p> <p>· 지역안내 ·</p> <p>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총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인 222-8171 · 영 신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총 433-1503 · 우 산 433-1503</p> <p>중 구 · 남 광 673-6836 · 동 통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흥 222-9054 · 흥 총 222-8171</p> <p>남 구 · 남 부 673-6836 · 북 은 651-1833 · 동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p> <p>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온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동 일 603-0311 · 화 정 369-1625</p> <p>광산구 · 남 남 952-1687 · 월 곡 950-1920 · 청 천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p>
<h4>산행안내</h4> <p>7월25일(일) ▲광주서산악회 7월25일(일) 강원도 동해, 삼척시&40년만에 개방, 한국 의장가계, 두타산(정음산)협곡마천루, 베를린지무계곡 산행, 염주체육관 05:00, 동아병원 05:05, 롯데백화점 05:10, 광주역 05:15, 문예후문 05:25, 비엔주차장 05:30 * 다음카페 광주시산악회 ☎ 010 7794 6920</p>					